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발전방안*

The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of Farmer's Study Group in Agricultural Extension Work in Korea

고순철** · 정인환***
Soonchul Ko · Inwhan Jung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evelopmental tasks for the successful fostering the Farmer's Study Group which have been guided by the agricultural extension work since 1994 in Korea. The 3,278 farmers study groups with 148,420 memberships have been organized in field of grains, cash crop, horticulture, livestock, improving living conditions, food processing and so on.

Although the number of study groups have rapidly expanded, there also are tasks to be secured for their successful development in terms of (a) desirable phase of the study groups and goals of its fostering, (b) managements / administration of them, (c) long-term tasks to be reviewed.

With regard to the desirable phase of the study groups and goals of its fostering, they should secure differential mission and the way of works compare to the other farmer's groups. Also, there should be consensus on the proper number of study groups to be fostered with a agricultural technical center at local level.

* 본 연구는 2005년 농촌진흥청의 연구용역,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결과를 수정, 보완한 것임.
** 협성대학교 도시지역학부 지역개발 전공 교수(교신저자). e-mail: kosc@uhs.ac.kr
*** 협성대학교 도시지역학부 도시행정 전공 교수. e-mail: iwjung@uhs.ac.kr

With regard to the managements / administration of the study groups, there should be the different support, assistance and guidanc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level of the groups. For these, there should be evaluation works on the groups, and guidance manuals for the extension workers. Also extension works should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among groups over the counties.

Finally, to establish the nationwide association in hierarchy and to make the cooperative works with similar farmer's group, doing the value-added activities rather than mere information exchange, and the introduction of 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the extension workers are long-term tasks needed to review for the successful fostering study groups.

주요어(key words):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farmers study group), 농촌지도(agricultural extension)

1. 서 론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농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많은 변화 요인 중에서도 특히 농업인 교육과 기술보급 체계에 영향을 주는 변화 모습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촌지도체계의 패러다임이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Rivera, 2001; 송용섭, 2003). 이러한 변화추세는 국가별로 그 수준을 달리하지만, 크게 ① 보급되는 기술이 중농 위주의 표준적 기술에서 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기술로, ② 공공 정책적 무료사업에서 수익자 부담의 유료 컨설팅 사업으로, ③ 개별농가의 기술수준 향상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업체 개발과 지원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둘

째, 생산자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변화의 속도와 내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화된 생산자 조직의 출현, 수많은 농업정보와 기술의 빠른 변화, 국제시장과의 경쟁 등이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은 더 이상 개별화된 농업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농업생산 및 공급체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생산자 입장의 가족농업 중심에서 소비자 입장이 강조되는 상업농의 단계로 진전되면서 농산물은 단순한 생산량 증대보다는 농산물의 질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생산방식으로, 노동집약적 영농에서 지식과 기술집약적 영농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농업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핵심을 하는 농업기술 보급 체계의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는 기본적으로 생산자 조직의 확대내지는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써, 기술보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체계 내부의 대응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접촉 방식을 개별지도에서 집단지도로의 전환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1994년부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란 형태로 농업인 학습자 조직을 육성하여 왔다.

비록 초기에는 단순한 학습자 조직에서 출발하였지만, 조직 활동은 단일 목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내용이 그 목적에 포함되고, 조직의 발전수준에 따라 그 활동 내용과 역량이 달라지는 조직 발전의 특성을 반영할 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발전과정과 현 단계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조직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조직화의 필요성이나 이유의 측면을 강조하는 생산력적 관점과 조직의 운영 방식, 발전 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조직관리론적 관점으로 논의되어 왔다(박광서, 1997:25). 따라서 일단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농업인 조직의 발전 방안은 조직관리론적 관점에서 조직이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다

양한 농업인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 조직으로 출발한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농업인 조직과의 경쟁과 협력 방안이나 독자적 존립 목적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단순한 정보와 기술교류의 차원에서 개별 학습조직의 활동을 강조해 온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을 조직의 규모화나 조직활동의 목적 재설정 등의 측면에서 조직 발전을 위한 대안적 발전방안을 제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농업생산자 조직화의 의의와 관점

국가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촌 내부적으로는 농가 고령화와 가구원 수의 감소로 농외소득 증대에 제약이 따르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 등의 경영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UR, WTO, DDA 등 일련의 협상을 통한 세계 교역조건의 변화로 시장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농업 생산적 대응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그 기저에는 시장 지향적 구조개편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 품목별로 전문화 또는 특화되어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 단계에서 볼 때, 시장지향적 농업구조의 개편은 과거의 농가간의 경쟁관계에서 국내 생산지역 간, 국제시장에서의 품질 간 경쟁관계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즉, 농산물의 상품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득증대 및 안정화는 규모의 확대를 통

한 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한데, 경영규모의 외연적 확대는 개별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방법과 개별농가들의 조직체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농가단위의 규모 확대는 개별농가로 하여금 하나의 경영체로서 농업생산 전 과정의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반면에 개별농가들이 조직화되면 개별농가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은 개별 농가가 생산조직에 참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 조직의육성을 통한 이점으로 김희승과 조창완(1998:72)은 생산조직을 통한 공동화, 협업화로 농자재의 공동구매, 농기계의 공동이용, 효율적인 기술도입과 보급, 공동판매전략 등을 수행하여 개별 경영의 취약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유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생산조직의 육성을 통해 개별 농가간의 경쟁을 극복하고, 생산의 차별화를 통한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농가의 경쟁력은 물론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농업생산조직에 대한 연구는 크게 생산력적인 관점과 조직관리론적 관점으로 구분되며, 생산력적 관점에서 조직관리론적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박광서, 1997:25). 생산력적인 관점은 생산자 조직화의 필요성이나 의의에 초점을 두는 이유(why)의 관점이라면, 조직관리론적 관점은 어떻게(how)라는 방법에 기초한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농정의 발전방향을 위한 패러다임의 하나로 산업분야에서 논의되던 클러스터(cluster) 이론이 도입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 일정 지역에서 농업의 생산, 유통, 가공, 저장 등 농산업 관련업체, 지방대학, 농업

1) 김정호(2004)의 글이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개념과 과제를 다루었다면, 고복남 등(2005)은 양돈 클러스터의 사례를, 이종호(2005)는 봉화의 고추 농산업 사례를 클러스터 육성의 관점에서 논의한 자료들이다.

관련연구소, 시·군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참여업체의 사업기회 확대와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만들어내는 집합체로 정의되고 있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개념(농림부, 2004 ; 김정호, 2004:518 재인용)의 개념의 핵심은 생산유통 조직화 및 학습조직 형성 등과 같은 생산 시스템과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

이러한 생산자 조직에 대한 제 관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발전과제와 연계시킬 경우, 조직육성 목적의 측면에서는 생산력적 관점에서, 조직운영 및 관리의 측면에서는 조직관리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지역농업 발전의 추진체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농업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논의 구조가 요구된다.

2.2.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특성과 현황

2.2.1.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개념과 특성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은 세계 농촌지도체계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지도사업의 대상을 개별 농민에서 집합적 접촉으로 변경시키면서, 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고자 농촌진흥청이 지도,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조직체이다. 이 조직체는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지도기관에 등록한 모임으로 정의된다(2005년 7월 18일 농촌진흥청 훈령 제691호 제2조). 즉,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은 ①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되, ② 농업인 등이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③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한 각종의 활동을 전개하는 동일품목 경영인 조직체의 특성을 갖는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목적은 크게

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② 지역별로 특성화된 품목 중심의 연구모임 조직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③ 품목별로 새로운 기술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동 경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사의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1996년부터 전문지도연구회를 운영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지도할 담당 지도사를 배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은 회원친목 도모는 물론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는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과정 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2.2.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조직과 활동 내용

2.2.2.1. 조직 현황

전국의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의 조직 수는 2009년 3월 현재 3,278개에 이르며, 회원 수는 148,420명이다. 이러한 규모는 1994년 당시 2,233개 조직에 62,732명의 회원에 대비할 때 조직 수는 약 1.47 배 증가하고, 회원 수는 약 2.37배가 증가하여, 조직보다는 회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현황(2010.3월 현재)

		식량작물	특용작물	원예작물	축산	생활개선	가공・기타
조직 수	3,278 (100.0%)	356 (10.9%)	346 (10.6%)	1,598 (48.7%)	453 (13.8%)	204 (6.2%)	321 (9.8%)
회원 수	148,420 (100.0%)	19,274 (13.0%)	13,054 (8.8%)	70,657 (47.6%)	22,995 (15.5%)	6,797 (4.6%)	15,643 (10.5%)
품목 수	269 (100.0%)	25 (10.8%)	48 (17.8%)	104 (38.7%)	26 (9.7%)	28 (10.4%)	38 (14.1%)

지역별 조직 수	경기 362	40	31	160	70	23	38
	강원 261	14	48	102	39	32	26
	충북 264	26	34	118	36	27	23
	충남 391	36	52	174	86	1	42
	전북 502	72	58	243	30	25	74
	전남 459	62	38	249	48	29	33
	경북 559	56	47	314	87	15	40
	경남 280	26	20	141	35	33	25
	제주 61	7	5	40	-	7	2
	서울 10	2	-	8	-	-	-
	부산 15	3	-	6	2	1	3
	대구 20	2	3	8	2	-	5
	인천 49	6	6	18	10	4	5
	광주 13	2	2	5	3	-	1
	대전 13	2	2	5	3	-	1
	울산 19	-	1	7	3	4	4

* 출처 : 농촌진흥청 내부자료(2010)를 재정리함.

행정 단위별로는 읍·면 단위 조직이 904개에 회원 수 31,556명으로 조직 당 평균 34.9명이 활동하고 있고, 시·군 단위 조직은 2,249개 조직에 회원 수 109,166명으로 조직 당 평균 48.5명의 회원이, 광역 단위 조직은 6개에 회원 수 364명으로 조직 당 60.7명 그리고 도 단위 조직은 119개 조직에 회원 9,432명으로 조직 당 79.3명이 각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단위 별로 볼 때 시·군 단위 조직이 전체 조직의 68.2%를, 회원은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 당 평균 회원은 도-광역-시·군-읍·면 단위 조직의 순으로 회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 조직은 경북(17.0%)-전북(15.3%)-전남(14.0%)-충남(11.9%)-경기(11.0%)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원예(48.7%)-축산(13.8%)-식량작물(10.9%)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 작목 위주로 조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품목별 세부 분야는 〈표 2〉와 같은데, 전체 품목 수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은 채소(22.5%)-약용(12.4%)-과수(12.0%)-생활문화(9.7%) 등의 순이다.

〈표 2〉 품목별 세부 분야 현황

품목	분야		
	세부 분야	조직 수	전체 중의 %
식량작물(25)	답작	10	3.9
	전작	9	3.5
	환경	6	2.3
특용작물(48)	유지	4	1.6
	약용	32	12.4
	버섯	6	2.3
원예작물 (104)	과수	31	12.0
	채소	58	22.5
	화훼	15	5.8
축산(26)	대가축	5	1.9
	중소가축 및 기타	21	8.1
생활개선(28)	생활문화	25	9.7
	관광	3	1.2
가공・기타(38)	가공	8	3.1
	유통	6	2.3
	인력 및 기타	19	7.4
계		258	100.0

* 출처 : 농촌진흥청 내부자료(2010)를 재정리함.

2.2.2.2. 활동 프로그램 유형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활동 프로그램은 실제로 다른 농업인 조직과 구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준거이다. 물론 개별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조직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육성기관의 입장에서는 차별준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재정확보 및 지원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주된 활동은 과제교육으로써, 2010년 3월 현재 총 교육 횟수는 15,382회이고, 이는 연구회 당 평균 연간 4.7회 정도이다. 과제교육은 다른 유사한 주민 조직체인 작목반과는 크게 구분이 되는 활동이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과 정보교환 활동만을 목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경우 구성원의 참여 및 조직의 지속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품목별로 조직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활동 프로그램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연구모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구성원의 지역적 거리, 국내·외 생산량 및 가격 등에서의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는 품목별로 편의성, 상품성, 안정성, 기능성 등 외부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생산-선별-포장-저장-유통-가공-판매-수출에 이르는 계열화를 모색할 수 있는 사업활동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과 정보교환, 생산수단의 공유 등을 통한 협업체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별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사업량과 국비 지원액은 〈표 3〉과 같은데, 사업량은 총 220개이고, 국비 지원 총액은 사업 당 1.5백만 원으로 275,000천 원에 이른다.

〈표 3〉 시도별 사업량 및 국비지원 현황

시군	사업량	국비지원액 (천원)	시군	사업량	국비지원액 (천원)
서울	1	1,250	강원	10	12,500
부산	2	2,500	충북	10	12,500
대구	6	7,500	충남	43	53,750
인천	4	5,000	전북	19	23,750
광주	3	3,750	전남	31	38,750
대전	1	1,250	경북	35	43,750
울산	1	1,250	경남	29	36,250
경기	25	31,250	제주	10	10,000

* 출처 : 농촌진흥청 내부자료(2010)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인 생산자 조직에 대한 문헌 연구와 품목별 농인인 연구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69개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1인 및 품목별 연구모임 회원 5인 등을 대상으로 질문 조사를 수행하였다.[2] 회수된 자료는 농촌지도사 70명, 연구모임 회원 284명으로써, 배부 대비 회수율은 각각 41.4%와 33.6%이다.

4. 연구 결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모임 및 회원의 수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초기 기술교류 위주의 학습단체에서 브랜드 활용, 조직 자금의 조성, 전자 상거래 운영 등 그 활동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별 연구모임의 육성 목적이나 활동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요소가 남아 있다.

농촌진흥청(2005, 2010)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1) 지원예산의 부족으로 자생력이 부족하고, 활동영역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2) 조직 수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술 위주의 조직 활동이 대부분이고, (3) 경영개선이나 소득증대보다 정보

2) 질문지 조사는 2005년에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 자료는 그 일부분이다. 조사 자료가 다소 시일이 지난 것이지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최초의 연구물이고, 본 연구를 수정하기 전에 2010년 7월 14~15일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연구모임 담당자 연찬회에서 인용된 자료의 특성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연구모임 담당담 지도사들과의 면접을 통해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및 기술교육 위주의 동아리형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으로 자체적인 진단을 하고 있다.

4.1.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회원구성의 문제

연구모임의 회원구성은 대체로 품목별 전문농업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복합경영 농업인이 품목별 전문농업인보다 회원구성 비율이 높은 곳도 56개 조직(2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농가의 소농경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연구모임 회원들의 기술수준도 편차가 심하다는 조직이 97개로 34.8%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회원구성별 기술수준

회원 구성	회원기술수준			전 체
	대부분 기술수준이 높다	대부분 기술 수준이 낮다	기술 편차가 심함	
품목별 전문농업인 위주	73(65.8)	3(2.7)	35(31.5)	111(100.0)
품목별 전문농업인 > 복합경영농업인	65(58.0)	8(7.1)	39(34.8)	112(100.0)
품목별 전문농업인 < 복합경영농업인	21(37.5)	12(21.4)	23(41.1)	56(100.0)
전 체	159(57.0)	23(8.2)	97(34.8)	279(100.0)

회원구성별 기술수준의 관계를 보면, 품목별 전문농업인 위주로 회원이 구성되었을 때는 기술수준이 높은 비율이 65.8%이지만, 복합경영농업인의 비율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비율이 37.5%로 떨어진다. 이러한 점은 설립당시의 연구모임 회원허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연구모임이 주로 사용하는 기술/정보교환 교육의 부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 대한 연구모임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사들은 기본적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서는 겸업농가나 타 조직 가입자를 배제한다면, 소비자를 참여시키거나 동일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면 선도농가와 일반농가가 함께 회원으로 구성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다만 동일 품목 재배자라도 회원자격을 부여할 때 연령이나 영농규모 등은 감안하여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회원구성의 동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2.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활동 내용

연구모임들은 기술교류/연찬 활동(73.0%), 회원친목 도모(60.7%) 두 가지 활동의 전개비율은 매우 높으나, 특히 생산 이후의 활동과 관련되어 실질적인 농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활동분야를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모임의 주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구모임의 활동에 대해서는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의 관점과 회원의 관점 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담당지도사들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기본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교류/연찬 및 회원 친목 외에, 가공상품개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종합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연구모임은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각각 81.8% 및 70.2%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활동의 실시와 중요성

	연구모임		지도사가 보는 중요성
	하고 있음	하지 않음	
회원 친목 도모	60.7	39.9	1.79
기술 교류 / 연찬	73.0	27.0	1.56
생산요소의 규모화	35.1	64.9	2.19
공동 출하 및 공동판매	32.3	67.7	1.97
공동 브랜드 사용	35.4	64.6	1.72
국내·외 시장 개척	25.6	74.4	2.12
생산 품목 관련 가공 상품 개발	18.2	81.8	2.20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종합적 활동	29.5	70.2	2.01
영농 대행	11.9	88.1	3.16
취미 학습활동	35.1	64.6	2.89

* 중요성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중요함을 의미함.

4.3.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 애로 사항

연구모임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애로 사항을 '애로가 매우 큼'에 1점, '애로가 전혀 없음'에 5점을 부여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연구모임 회원들은 개인을 우선시하는 회원의 풍조 외에는 보통 수준의 응답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농촌지도사들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풍조, 임원과 회원의 역할 분담, 책임자의 과도한 역할, 운영자금 부족, 연구모임의 장기 비전 부재 등 많은 항목에서 애로가 있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 연구모임 회원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원선출의 비민주성, 비 영농종사자의 회원가입, 복합영농자의 회원가입, 상급 단위의 연합회 조직 부재, 회의 결과 등의 기록 부재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약간의 애로가 있

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4. 조직 참여에 따른 이익

조직 활동의 성과는 조직이 조직구성원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생산자 단체 및 조직유형별로 영농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리한 곳을 알아본 결과, 연구모임 회원 및 담당 농촌지도사 모두 연구모임은 친목과 교육과 관련된 활동, 즉 회원친목 도모, 취미학습활동,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 신상품 개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6〉 참조).

총 18개의 항목에 대해 두 집단 모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회원친목 도모, 취미학습활동, 기술교류 또는 정보교환, 신상품 개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 등 5개 항목으로 주로 교육과 관련된 활동으로 반응하였다. 그리고 영농대행에 대해서는 영농조합이 가장 유리하고,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각 활동을 전개하는데 유리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농업정책개발이나 농업인 권익보호, 합법적 로비활동 등 농업외적 사항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과 협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모임 회원들에 대해, 현재 참여 중인 생산 조직과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중 하나만 선택할 경우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 두 가지 주된 이유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① 다른 조직은 협동조합 등의 지원이 있고, 실천적 사업으로 농어민 실익과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이익을 위한 의식의 팽배로 응집력이 부족하고, 개인의 이익에 따라 활동하는 정치조직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은 생산기술 향상에 유리하고, 개별적인 전문기술 습득과 친목을 위한 결합이 잘되고, 지역의 농업을 위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종합적 활동에 제약을 받고, 목표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6〉 농업관련 활동의 생산자 조직유형별 상대적 유리성

		조직 유형					
		협회	작목반	품목 조합	영농 조합	협동 조합	품목별 연구모임
회원 친목 도모	회원	15(5.5)	94(34.6)	6(2.2)	3(1.1)	1(0.4)	153(56.3)
	지도사	7(10.1)	20(28.6)	2(2.9)	3(4.3)	2(2.9)	36(51.4)
취미 학습활동	회원	20(7.4)	48(17.8)	7(2.6)	5(1.9)	11(4.1)	179(66.3)
	지도사	12(17.1)	15(21.4)	2(2.9)	3(4.3)	2(2.9)	36(51.4)
기술 교류 / 정보교환	회원	27(9.8)	39(14.1)	11(4.0)	15(5.4)	8(2.9)	176(63.8)
	지도사	3(4.3)	6(8.6)	1(1.4)	2(2.9)	1(1.4)	57(81.4)
영농 대행	회원	6(2.2)	46(16.8)	20(7.3)	143(52.4)	44(16.1)	14(5.1)
	지도사	2(2.9)	18(25.7)	3(4.3)	35(50.0)	9(12.9)	1(1.4)
생산요소의 규모화	회원	5(1.8)	41(15.0)	30(11.0)	91(33.3)	70(25.6)	36(13.2)
	지도사	2(2.9)	8(11.4)	11(15.7)	24(15.7)	14(20.0)	9(12.9)
공동출하 및 공동판매	회원	5(1.8)	46(16.5)	42(15.1)	68(24.5)	85(30.6)	32(11.5)
	지도사	1(1.4)	7(10.0)	8(11.4)	10(14.3)	33(47.1)	8(11.4)
공동 브랜드 사용	회원	11(4.0)	51(18.5)	43(15.6)	45(16.4)	70(25.5)	55(20.0)
	지도사	5(7.1)	5(7.1)	10(14.3)	12(17.1)	16(22.9)	21(30.0)
소비자 인지도 제고	회원	21(7.7)	21(7.7)	42(15.4)	50(18.4)	89(32.7)	49(18.0)
	지도사	3(4.3)	4(5.7)	12(17.1)	12(17.1)	27(38.6)	12(17.1)
생산 품목 관련 가공상품 개발	회원	15(5.5)	16(5.8)	45(16.4)	51(18.5)	92(33.5)	56(20.4)
	지도사	1(1.4)	1(1.4)	10(14.3)	16(22.9)	22(31.4)	18(25.7)
신상품 개발	회원	11(4.0)	25(9.2)	45(16.5)	38(14.0)	67(24.6)	86(31.6)
	지도사	3(4.3)	2(2.9)	12(17.1)	11(15.7)	10(14.3)	31(44.3)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종합적 활동	회원	15(5.5)	10(3.6)	27(9.9)	47(17.2)	142(51.8)	33(12.0)
	지도사	3(4.3)	1(1.4)	4(5.7)	9(12.9)	42(60.0)	11(15.7)

국내 시장 개척	회원	20(7.4)	11(4.0)	38(14.0)	46(16.9)	135(49.6)	22(8.1)
	지도사	3(4.3)	3(4.3)	11(15.7)	9(12.9)	33(47.1)	10(10.0)
외국 시장 개척	회원	37(13.9)	6(2.2)	38(14.2)	39(14.6)	138(51.7)	9(3.4)
	지도사	9(12.9)	3(4.3)	7(10.0)	9(12.9)	35(50.0)	7(10.0)
농산물 가격 통제력	회원	45(16.7)	11(4.1)	33(12.2)	36(13.3)	135(50.0)	10(3.7)
	지도사	9(12.9)	2(2.9)	8(11.4)	9(12.9)	39(55.7)	3(4.3)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	회원	12(4.4)	78(28.4)	29(10.5)	30(10.9)	53(19.3)	73(26.5)
	지도사	4(5.7)	14(20.0)	2(2.9)	8(11.4)	12(17.1)	28(40.0)
각종 농업정책 개발	회원	80(29.7)	9(3.0)	23(8.6)	36(13.4)	82(30.5)	40(14.9)
	지도사	25(35.7)	1(1.4)	2(2.9)	4(5.7)	24(34.3)	14(20.0)
농업인 권익보호	회원	85(31.3)	11(4.0)	21(7.7)	39(14.3)	83(30.5)	33(12.1)
	지도사	21(30.0)	0(0.0)	2(2.9)	8(11.4)	30(42.9)	9(12.9)
합법적 로비 활동	회원	90(33.6)	8(3.0)	25(9.3)	43(16.0)	79(29.5)	23(8.6)
	지도사	25(35.7)	2(2.9)	0(0.0)	2(2.9)	27(38.6)	4(5.7)

이러한 평가는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모임이 기술향상과 친목에 도움이 되나, 유통이나 판매 등에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기술개발과 유통/판매를 위한 활동이 수반된다면 다른 생산자 조직이나 단체에 비해 상대적인 유리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하나의 조직이 태동되어 성장과정을 거쳐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단계별로 조정되고 정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조직의 위상 및 육성 목적과 관련된 사항과 조직 운영을 위한 내적 측면의 사항 그리고 장기적 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세 가지 측면에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발전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조직화의 목적을 명료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농촌진흥청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 제고, ② 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의 배양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라는 두 가지이다. 전자의 경우는 농촌지도사업의 과거 개인에 초점을 두었던 지도사업 접촉대상을 품목별 집단 또는 조직 단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는 농촌지도사업의 주된 영역인 선진 기술의 전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문제는 현 단계의 농촌지도사업 영역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지도과제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조직 육성을 위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할 때 연구모임 자체의 목적 및 활동 프로그램의 범위 또는 정부지원 등에 있어서 다른 유사 조직체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지도기관은 물론 연구모임 자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육성 규모에 대한 지도기관 내부의 목표설정이 요구된다. 공적 영역에 속한 농촌지도사업의 특성상 농업인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연구모임을 차별할 수는 없지만, 농촌지도사업의 인력이나 지원 등을 감안할 때 무한정 지도, 육성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농업인 개별접촉에서 집단접촉으로의 변경만을 추구한다면, 그 수의 확장은 기존의 개별접촉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모임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생산교육 이상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도사업의 본질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시·군 단위에서의 적절한

조직의 육성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생산자 단체로서의 인준과 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육성, 지도의 차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품목별, 주산지별로 규모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 평가기준과 지표개발, ② 연구모임의 발전수준별 유형화, ③ 유형화된 연구모임 수준에 따른 지도 및 육성 내용의 차별화와 지원 차등화 과정 등이 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모임 지도, 육성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회원의 자격, 다양한 연구모임 명칭 사용, 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표준화된 규약 등과 같은 일반적 내용 외에 품목별, 지역별 활동사례 등에 대한 정보, 그리고 회의진행, 토의법, 활동 분야별 전문가 인력자원에 대한 정보 등과 같은 지도력 개발을 위한 전문적 내용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품목별로 연구모임 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소식지를 발간, 보급함으로써 참여의식을 증진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모임 간 경쟁을 자극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구모임별 활동이나 연구결과물에 대한 발표, 전시, 경진대회,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그에 대한 시상을 하고, 그 활동이 저조한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지도기관에 대한 등록에서 제외하는 등의 차등적 육성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농업은 그 특성상 지역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성을 축으로 하는 생산 활동과 조직의 기능을 축으로 하는 전국단위

의 결합 형태를 통한 전국적 조직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3개의 특정 품목에 대한 시범적 운영을 통해 검증한 후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조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여러 생산자 단체나 조직과의 협조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법적, 행정적 지원, 농협의 유통, 농촌지도기관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역 대학의 연구 기능 등은 협조체계 확보를 위해 이미 어느 정도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다른 생산자 단체와는 차별화되는 전문 영역에서의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발전 단계에서 일선 농촌지도사들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비록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역할과 발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선 현장의 농촌지도사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역할 부담을 고려할 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해서만 집중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선 농촌지도사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품목별 전문지도연구회를 활성화하는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수 육성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연구회 활동 및 연구회별 연계활동을 위한 기금 지원 등은 이를 위한 기본적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연구모임 담당 지도사의 인식 전환 및 새로운 학습능력이 요구된다. 현장위주의 컨설팅, 생산기술 위주의 지도활동보다는 유통이나 판매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습득, 이를 위한 지역 내 인적 자원의 발굴(Pool 형성)과 활용은 개인적 차원의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셋째, 품목별 전문지도연구회의 능력 형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이나 워크숍을 개발하여 중앙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경기도농업기술원. (2004). *2004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 방안*. 품목별연구회 간담회 자료.

김영수・조창완. (1999). 지역농업육성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17(2), 61-82.

김정호.(2004).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가능성과 과제. *농업경영・정책연구*, 31(3), 514-534.

김희승・조창완. (1998). 농업생산조직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논문집*, 71-99.

농촌진흥청. (2010). *2009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결과*. 농촌진흥청 내부자료.

농촌진흥청. (2005),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 방안*, 품목별 연구모임 활력화 연찬회 자료.

박광서. (2002), 농업관련 조직의 실태와 농촌 내부의 경제력 집중 협상 분석 - 전남지역 K군의 농업생산법인체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2(1), 5-36.

박광서. (1997). *농업생산조직과 지역농업조직화－일본의 경험*. 전남대학교 출판부.

송용섭. (2003). 농촌지도사업 추진전략과 제도혁신 방안.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 자료*. 농촌진흥청.

유덕기. (2000). 지역농업연구의 패러다임 모색. *농업경제연구*, 41(3), 125-152.

유정규・장우환. (2003). 지역농업 재편과 지자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30(3), 461-491.

이남선. (1988). 마을단위 농업생산조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호. (2005). 지역 농산업산지의 혁신환경과 클러스터 육성전략 : 봉화군 고추 농산업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2), 233-246.

조성백・최민호. (1996). 농업생산력의 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조직의 발전과정. *한국농촌지도학회지*, 3(1), 1-16.

조창완. (1999). *농업생산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시설딸기 생산농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용주. (2000). 품목별 생산조직 활동의 변화와 지역농협의 과제 : 전남 나주 세지 멜론작목회 활동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0, 71-102.

Rivera, M. W. (2001), *Agricultural and Rural Extension worldwide-Op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in the Developing Countries*, Roma: FAO

논문투고일: 2010. 8. 6
1차수정일: 2010. 8. 25
2차수정일: 2010. 9. 13
게재확정일: 2010. 9. 17